

따릉이, QR코드로 스마트해진다

서울시 자전거 단말기 방식 교체 시설물 간소화, 안전·편리 향상 올해 대여소 600개 추가 설치



QR코드 단말기가 설치된 따릉이 대여소. /서울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새롭게 변신한다. 자전거 단말기를 LCD 방식에서 QR코드 방식으로 교체함에 따라 디자인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단말기를 QR코드 방식으로 바꿔 따릉이 시설물을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대여소와 차별성을 갖춘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제9차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한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따릉이 심벌을 반영으로 응용한 디자인을 차용해 대여소 거치대에 자전거를 밀어서 간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릉이 단말기를 QR코드 방식으로 바꾸면 통신합체가 필요 없어져 대여소 확장이 용이해진다. 오는 2020년까지 따릉이 대여소를 3040개로 늘려 시설물 간격을 300m로 줄인다는 시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기존 LCD 방식의 단말기는 자전거와 각 대여소에 설치된 통신합체와 Wifi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한 후, 무선AP는 서버와 LTE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QR 방식 단말기는 자전거가 서버와 직

접 통신해 대여소에 무선 통신합체를 갖출 필요가 없고 운영 시스템에서 대여소의 위도와 경도 좌표 설정도 가능하다.

자전거 단말기를 QR 방식으로 변경하면 전기공급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돼 시설물이 간소화된다. 시는 구축비용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통신합체 이상으로 발생하던 대여소 통신장애 현상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구성도 강화돼 거치대가 파손되거나 녹이 스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번에 선보이는 QR 방식의 자전거는 기존·신규 대여소에서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LCD 단말기가 부착된 자전거는 기존 대여소에서만 대여·반납할 수 있다. 시는 2가지 방식의 자전거·대여소 운영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거치대 디자인을 개발한다. 자전거 거치대에

강철구조를 적용해 자전거 흔들림을 막고, 빗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QR 단말기 자전거는 대여소에 자전거를 밀어 넣기만 하면 거치가 완료된다. 대여소 빈자리에 자전거를 수납한 후 잠금장치를 끼우는 이전 방식처럼 물리적인 연결이 없어 자전거가 보도에 무단 방치될 우려가 있다. 시는 공공자전거 배송팀, 순회 정비반, 어르신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놓여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를 수거해 대여소에 거치할 계획이다.

시는 9월까지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를 마치고 11월 중 신규 대여소 설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따릉이 대여소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QR코드 방식 단말기가 부착된 따릉이는 통신테스트를 거쳐 연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전통시장 긴급 보수

가연성 천막, 아케이드 수리·교체 대피로 안내표지판·비상경보기 설치

서울시는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20곳에 대한 긴급 보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은평구 대림시장, 관악구 삼성동시장,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종로구 광장골목시장,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성동구 뚝도시장 등을 개·보수한다.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노후천막을 바꾸고 붕괴 우려가 있는 외벽과 천장을 고친다. 가연성 천막과 아케이드도 수리·교체 대상이다. 대피로 안내 표지판과 비상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보급한다. 소방펌프도 교체해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천장 금속판 부식 및 낙하위험이 발견돼 추가 보수를 실시한다.

대림시장은 대형간판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 확인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수리에 들어간다. 뚝도시장은 40년 넘는 노후 아케이드와 천장마감재를 교체한다.

중계동시영B상가는 무등록 시장으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서울시 지원시장으로 선정돼 30년 만에 노후천막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취약시설 보수 지원예산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이 없도록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해바라기 배경으로 '찰칵' 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택시동승 앱 '반반택시' 첫 선... 요금 반반씩 부과

동승객은 동성만 가능

심야 시간 택시 합승을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1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서울시와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1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의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7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됐고, 앱 운영사인 코나투스가 서울시 승인을 거쳐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조건 검수를 마쳤다.

반반택시는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으로 동승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동승객을 연결해 준 뒤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던 과거 합승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동승객은 동성만 가능하며 ▲인접 지역 1km 이내 ▲동승 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매칭이 이뤄진다.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다. 서비스 지역은 승차난이 많은 12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로 제한됐다.

요금은 동승 거리에 따라 반반씩 부과되며, 호출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호출료는 오후 10~12시는 건당 4000원(1인 2000원), 오전 0~4시는 건당 6000원(1인 3000원)이다.

예를 들어 오전 1시에 2만원 요금 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 두 명이 각각 택시를 타면 총 4만원을 내야 하지만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각각 1만 3000원씩(요금 1만원, 호출료 3000원)만 내면 된다. 운전자는 수금액 2만 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 5000원을 받는다.

반반택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조사

복층구조물 붕괴사고 사전 예방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에 놀란 서울시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클럽 유사시설을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

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에는 마포·서대문·광진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우선 52개의 허용업소를 점검한다. 올해 초 버닝썬과 관련, 특별점검 때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벌인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전자카드제 도입 급물살... 임금체불 막는다

노동자 출퇴근 시간 직접 등록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무자가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고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의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은 1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체크카드 형식의 전자카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을 직접 등록함으로써 일한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은 하도급 공사 진행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낮추게 되면 인건비를 절감하는 비중이 높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퇴직공제금도 일부는 못 받고 퇴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하는 노동자들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박원희 기자 wanhee@

서울시,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130곳 예산 27억8000만원 투입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23일까지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간이 스프링클러,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를 받은 고시원은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시와 체결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자치구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27억8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고시원 130곳에 간이 스프링클러와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